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05

2012 <http://www.ucac.or.kr>



# ULSAN PHILHARMONIC ORCHESTRA

156th Regular Subscription Concert  
Fri 18th May, 2012. 8:00PM  
Conductor Kim Hong Je Piano Paik Hae Sun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56회 정기연주회

2012 정기연주시리즈 **名作 IV**

## 백혜선회악주 기념음악회



2012. 5. 18(Fri)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김홍제  
피아노 백혜선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공연문의 <http://www.ucac.or.kr> 275-9623~8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시립예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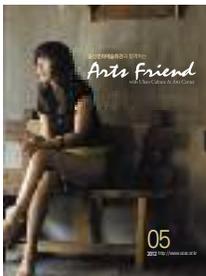
09



11



16



05

## Contents

The Monthly Magazine of Ulsan Culture & Art Center

- 04 ■ 시립예술단 공연**  
교향악단 제156회 정기연주 시리즈 4작M '북미순회연주기념음악회'  
합창단 제75회 정기연주회 '사랑과 행복이 흐르는 가정음악회'  
교향악단 가족음악회 '히어로 베토벤'  
무용단 '뮤직 & 뮤지컬'  
청소년교향악단 제25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의 밤'
- 11 ■ 기획공연**  
뮤지컬 '년버블 퍼포먼스 비밥'  
칼로니아발소  
최정원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  
전제덕, 민경인 Duo 콘서트  
해설이 있는 무용공연 'Shall We Dance'
- 16 ■ 기획전시**  
한국미술 100년, 거장 35인 특별전
- 18 ■ 예술을 말하다**  
도르트문트 콘체르트하우스  
오페라의 역사 I  
드보르작 교향곡 9번 e단조 Op.95<신세계로부터>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빛내는 숨은 주역들
- 30 ■ UCAC는 지금**  
톡! 톡! 톡!
- 31 ■ 5월의 공연·전시**  
공연·전시 가이드  
5월의 공연·전시

### COVER STORY | 최정원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

뮤지컬계의 영원한 디바 최정원이 5월 10일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그녀가 초청한 유명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환상적인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선보이고, 화려한 입담으로 뮤지컬 작품, 비하인드 스토리, 뮤지컬계의 동향 등을 전해준다.

###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5월호 | 통권 제154호

-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413-13)  
T. 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 발행인 / 광상희 ●편집인 / 안종철
- 기획·편집 / 김현욱,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 디자인·제작 / 동방디앤피 T. 052)266-8500



## 2012 정기연주 시리즈 名作Ⅳ

# 북미순회연주 기념음악회

울산시립교향악단  
2012. 5. 18(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피아노 백혜선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제156회 정기연주회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의 6월 '북미순회연주'를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먼저 선보이는 기념음악회이다. 이번 해외연주회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창단 이래 첫 해외연주회로 울산광역시와 자매도시로 1987년 이후로 지속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는 포틀랜드시 장미축제 초청연주회와 캐나다의 3번째 대도시인 밴쿠버에서의 해외연주가 기획되어 있다.

특히, 포틀랜드의 장미축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에 수백만명이 관람할 정도로 명성이 높은 세계적인 축제로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이번 첫 해외연주회에 울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

### 한국인의 정서가 가장

#### 잘 담겨있는 '아리랑환상곡' 과 '신세계교향곡'

로젠마린이 이끄는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공연에서 마지막 앵콜곡으로 연주되어지기도 한 최성환 작곡의 아리랑은 전국적으로 불리는 민요 아리랑을 환상곡 풍으로

PROGRAM

■ 최성환

아리랑 환상곡  
Arirang Fantasia

■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피아노 협주곡 제5번 내림마장조 작품73번 '황제'  
Piano Concerto No.5 in E flat Major Op.73 "Emperor"  
• 제1악장 Allegro Moderato-Moderato assai  
• 제2악장 Canzonetta Andante  
• 제3악장 Finale Allegro Vivacissimo

■ 드보르작 (Antonín Dvořák, 1841~1904)

교향곡 제9번 E단조 작품95번 '신세계로부터'  
Symphony No. 9 in E minor, Op.95, "From the New World"  
• 제1악장 : Adagio - Allegro molto  
• 제2악장 : Largo  
• 제3악장 : Molto vivace  
• 제4악장 : Allegro con fuoco

만든 것으로, 북한의 공훈예술가 최성환(1936-1981)이 1976년에 작곡한 곡이다. 서양악기와 개량국악기를 포함한 '배합관현악곡'으로 작곡되어 북한에서 가장 널리 연주되고 내세우는 관현악곡의 대표작이다. 우리에게는 1970년대말에 알려졌고, 1990년 북측이 남북단일팀 단가 합이 때 판문점 회담장에서 녹음된 것을 들려주어 유명한 곡이 되기도 했다. 그 후 일본에서 김홍재 지휘로 NHK교향악단을 비롯해 100여개의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되었고 미국의 카네기홀, 헝가리, 폴란드,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연주되었다. 또한,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은 1890년대 미국 음악원 원장자리를 제안받아 미국에 체류하면서 작곡한 대표작 3곡 중 한곡으로 '미국을 보지 않아더라면 이런 교향곡을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의 광활하고도 활기찬 모습들에 대한 인상을 간결하고도 역동적이며 귀에 쏙 들어오는 선율로 잘 표현한 곡이라 할 수 있다.



피아노\_백혜선



지휘\_김홍재

섬세함과 열정을 겸비한

우리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백혜선

화려한 스케일, 호쾌한 타건과 기교를 뛰어넘어 심오함과 섬세한 서정을 두루 표출하는 피아니스트 백혜선은 매 연주회를 통해 청중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감동을 주는 연주자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임용 당시 20년 만의 최연소 교수 임용이라는 화제를 만들면서 10년간 재직했던 서울대 교수 자리를 2005년, 훌연히 박차고 나와 드넓은 세계로 유유히 나아갔던 백혜선은 매년 여름 뉴욕의 한복판에서 열리는 세계 피아니스트들의 축제인 IKIF(인터내셔널 키보드& 인스티튜드 페스티벌)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회 연속 초청되어 28개의 독주회로 구성된 대가시리즈에서 필립 앙트로몽, 메나헴 프레슬러, 마크 앙드레 아믈랭, 알렉산더 코브린, 율가 케른 등과 어깨를 겨누며 그의 독주회를 선보이면서 뉴욕 평단의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인상 깊고 뛰어난 연주,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감동 어린 연주라는 극찬을 받으며 2010년에도 초청을 받았다.

또한 피아노의 거장 블라디미르 펠츠만이 음악감독으로 있는 피아노 썸머 인 뉴필즈 페스티벌에서 그의 연주를 본 펠츠만이 페스티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피아니스트를 독주자로 지목하는 이변을 낳으며 2010년의 독주회에 백혜선을 초청했다. 주요 연주 경력은, 보스턴 심포니, 워싱턴 내셔널 심포니, 뮌헨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프랑스 국립 라디오 필하모닉,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버밍햄 심포니, 벨지움 심포니, 바르샤바 필하모닉, 소피아 필하모닉, 호놀룰루 심포니, 모스크바 필하모닉, 카자흐스탄 국립오케스트라, 뉴저지 필하모닉, NHK심포니, 도쿄 필하모닉, 오사카 센쥬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르헨티나 국립교향악단, KBS심포니, 코리아 심포니 등과 협연했다.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울산시립합창단 제75회 정기연주회

# 사랑과 행복이 흐르는 가정음악회

5월 8일 (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전석 5,000원(회관회원 30%, 단체 20% 할인)  
\* 공연문의 [www.ucac.or.kr](http://www.ucac.or.kr) \* 전화예매 275-9623~8





울산시립합창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친숙하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선곡하여 어버이날인 5월 8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사랑과 행복이 흐르는 가정음악회'를 마련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식재료로 일상에서 흔히 접하고 있는 감자를 소재로 하여 구수한 우리의 언어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스한 정을 떠올리게 하는 한국의 서정성을 표현한 곡과 젊은 세대의 시각에 맞추어 요리와 관련한 감자의 실용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같은 제목의 두 곡을 재미있게 비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옛 일을 추억하며 인간의 감성을 표현한 여성합창 그리고 북어를 의인화 하고 산 낙지를 먹는 모습을 풍경화 한 남성합창에 이어 가요메들리를 마련하여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음악회로 기획하였다.

글 | 김성민(울산시립합창단 단무장)

#### PROGRAM

- **혼성합창** | 중세부터 현재까지  
다시 부르는 노래 | 이영조
- **혼성합창** | 의미와 실체  
감자 | 이수인  
감자 | 안현순
- **여성합창**  
옛님 | 이민정  
하나가 되어 부르자 | G. Gilpin
- **남성합창**  
북어 | 정덕기  
산 낙지 | 김준범
- **한국가요정선** | 김일권 편곡

가족음악회

# 히어로 베토벤

05.04

울산시립교향악단

2012. 5. 4(금) 19:30 / 5. 5(토) 15: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휘 김종규(부지휘자)

특별출연 바리톤 최대우(울산시립합창단원) / 극단 미지

입장료 전석 5천원(회원 30%, 단체 20% 할인)

※ 만4세 이상 입장가



PROGRAM

- 운명 교향곡 1악장
- 베토벤 미뉴엣 G 장조
- 전원 교향곡 1악장
- 가곡 신의 영광
- 베토벤 비창 소나타
- 영웅 교향곡 1악장
- 환희의 기쁨 - 월광 소나타
- 9번 합창 교향곡 4악장
- 가곡 Ich liebe dich
- 영웅 교향곡 2악장(Marcia funebre)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준비한 5월 가족음악회 ‘히어로 베토벤’

울산시립교향악단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울산시민들에게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음악회를 선보인다. 베토벤의 주옥같은 명곡들만 엄선하였으며, 재미있는 연극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우리가 아는 카리스마 있는 진지한 베토벤이 아니라 공연의 재미를 위해 다소 코믹적인 베토벤을 묘사하여 음악의 성자로 불리우는 베토벤을 보다 친숙하게 어린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공연은 5월 4일(금) 오후 7시 30분과 5월 5일(토)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일간 공연하기 때문에 관람하기 좋은 일자를 선택하여 관람할 수 있다. 5월 어린이날을 울산시립교향악단의 가족음악회 ‘히어로 베토벤’ 과 함께하시길 바란다.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 울산시립무용단

# 뮤직&뮤지컬



한국 전통춤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을 목표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시립무용단에서는 5월 17일(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춤, 소리, 영상이 결합어진 뮤직드라마, 무용드라마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의 춤과 소리를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울산시립무용단 '나는 무용수다'와 같이 시민들에게 친숙한 소재를 활용하여 기획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춤과 소리의 보급과 관객층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주옥같은 인기 드라마와 영화 OST를 한자리에서 감상

이날 공연에서는 고현정의 드라마 복귀작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선덕여왕',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해를 품은 달' 과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 '쾌도 홍길동', '추노', '아내의 유혹' 등 드라마 OST와 영화 '황진이', '놈놈놈', '미인도', '해피엔딩', '왕의 남자' OST의 감미로운 선율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글 | 신박범(울산시립무용단 단무장)

울산시립무용단  
2012. 5. 17(목)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안무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입장료 전석 5,000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 PROGRAM

#### ■ 1부 : 드라마 창작

- 선덕여왕
- 꽃보다 남자 - 파라다이스
- 해를 품은 달
- 쾌도 홍길동 - 만약에
- 추노
- 아내의 유혹 - 용서 못해

#### ■ 2부 : 영화 창작

- 황진이
-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 미인도
- 해피엔딩
- 왕의 남자

05.17



05.22

제25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의 밤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2. 5. 22(화) 19:3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휘 김종규  
특별출연 트럼펫 칸타빌레

지휘자 김종규가 지휘봉을 잡아 모차르트의 주요 작품을 선보이고 특별출연으로는 화려하고 멋진 트럼펫의 진가를 감상할 수 있는 [트럼펫 칸타빌레] 팀이 출연한다.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회는 지역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주요 목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연주회 또한 클래식 연주회를 통해 건전한 사고 가지게 해주고 특히, 모차르트의 맑고 깨끗한 리듬과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하게 해줌으로써 음악감상을 통한 청소년의 심신 안정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모차르트는 음악사상 최대의 작곡가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며 세 살 때부터 신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음악적 천재이다. 그의 음악은 고귀한 기품을 지닌 단정하고 아름답고 동심에 차 있으며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창작력이 돋보인다.

그러기에 그의 음악을 궁정음악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단정한 스타일과, 맑은 하모니를 기본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모차르트가 남긴 작품은 무려 1000여곡 가까우며 모든 작품이 다양한 계층에서 사랑을 얻고 있는데 모차르트의 리듬은 태아의 안정된 심박동수와 일치하다하여 태교음악에 있어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며 단정하고 밝은 음악적 스타일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모범이 되는 음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작품이 세계 인류에게 귀중한 유산인 것이다. "모차르트의 밤"은 이들 모차르트의 작품중에서도 청소년에

게 재미를 더한 "후궁으로부터의 유괴"와 모차르트 하면 단연 으뜸이 되며 선율이 깨끗한 "디베르티멘토" 중 제1번 작품을 들려주며 메인곡으로는 교향 작품 중 제39, 40, 41번 중 메뉴엣만 골라 연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트럼펫의 힘찬 기교를 느낄 수 있는 [트럼펫 칸타빌레] 팀의 연주가 마련되어 있어, 시청각적 유익을 기대해본다. 글 | 김수형(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무장)

PROGRAM

- 모차르트 | 서곡 "후궁으로부터의 유괴" 작품384  
Overture to 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 K.384 / W.A.Mozart
- 특별출연 | 트럼펫칸타빌레
  - 윌리엄 / 텔레만 모음곡  
Telemann Suite / arr. B.William
  - 앤더슨 / 나팔수의 휴일  
Bugler's Holyday / L.Anderson
  - 심슨 / 소나티나  
Sonatina / R.Simson
  - 베르디 / 개선행진곡  
Triumphal March / G.Verdi
- 모차르트 | 디베르티멘토 제1번 작품136  
Divertimento No.1 in D Major, K.136 / W.A.Mozart
- 모차르트 | 교향곡 제39,40,41번 中 제3악장"메뉴엣"  
Symphony No.39, 40, 41. mov.3 "Menuetto" / W.A.Mozart





넌버블 퍼포먼스 비밥

# bibap

DELICIOUS PERFORMANCE

요리, 액션으로 배우진 맛있는 공연

5.26(토) 15:00 / 19: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회원 30%, 단체 20%할인)

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전화 052)275-9623



대사없이 몸동작과 리듬, 비트 중심으로

이루어진 뮤지컬 퍼포먼스



## 2010년 세계가 먼저 인정했다!

Metro:세프는 비보잉, 한국 음악, 무술이란 매력적인 레시피로 맛있게 잘 만들어진 음식이다. 출연진의 에너지가 Kurogo격투장면에서 최고조에 달해, 빨려들 것 같은 속도로 가져온다. 진정한 오감의 축제이다. The Scotsman:엄청난 역량의 출연진이 한 전설적 요리사의 이야기를 전한다. 80분 내내 하이라이트로 가득차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와이어액이 가장 돋보이는 것 중의 하나였다. 와호장룡 주인공처럼 비현실적 공중격투장면에서 소소하게 즐거움을 찾는다. 비밥은 전쟁없는 외식이다. 달콤한 감성육수에 상큼한 상상소스를 얹어 만든 신선한 맛!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오감을 통해 가족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제공한다. 비밥은 통쾌한 외식이다. 매콤한 비트박스와 바삭한 비보잉에 코메디 소스를 얹어 만든 화끈한 맛! 신나는 비트박스와 화려한 비보잉, 감미로운 아카펠라가 모여 관객들에게 80분간 신나는 공연을 제공하여 일상에 지쳐있는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이 될 것이다. 비밥은 통하는 외식이다. 공연 스트에서 언어장벽을 건져내어 세계인 누구에게나 통하는 깔끔한 맛! 비언어극의 형태를 이용하여 외국인들도 공연을 쉽게 관람할 수 있으며 비트박스, 아카펠라, 비보잉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세계인이 공감할 코미디의 조화는 비빔밥만큼이나 다채로운 맛을 선물하며 한국을 찾는 또 하나의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기 획 공 연

5. 6(일) 17: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15,000천원  
(회원 30%, 단체 20%할인)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1시간(휴식없음)  
티켓신청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전화 052)275-9623

이탈리아식 난타공연!

# 칼로니이발소



이탈리아식 난타공연!!!  
칼로니이발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축 개업” 칼로니 이발소 개업 기념  
파격서비스 이발소라고  
이발만 해주면 섭섭하지 않겠소?

- 2006 밀라노 크라운페스티벌 수상
- 2007 그루클리아스코 국제현대서커스페스티벌 수상
- 2008 스페인 ARCA페스티벌, 아길라르데캄포 아동, 청소년극 부분 수상

반세기 전 이탈리아 동네 이발소로 모십니다. 느끼, 진지, 4차원 정신세계의 꽃중년이 선사하는 음악연주와 재미진 유머코드까지 칠성급 동네 이발소 서빙으로 모십니다.

칼로니 이발소만의 안락한 대기 장소에서 약1시간만에 세 명의 이발사의 서비스에 폭 빠져계신다면 어느새 당신도 무대 위에서 머리를 맡기고 싶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동네의 작은 이발소는 세월의 흔적으로 뿌영게 흐려진 사각형 거울, 낡은 의자와 녹슨 도구들만 남아있다. 하지만 반세기 전만 해도 이발소는 신사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모임 장소였다. 그곳에는 음악이 있었고 커피가 있었고 신뢰 받는 이발사만의 특별한 일화도 있었다. 간략히 이야기하면 The Barber's는 마을의 중심이었다. 이 쇼는 그리 멀지않은 과거에 이발사가 노래부르고 음악을 연주하고 음료수를 대접하고 조언을 해주는 등 손님을 즐겁게 해줬던 이발소 분위기를 재 창조하려한다. 세명의 포부를 가진 이발사들은 이발소와 큰 대기실만으로 꾸며진 무대에서 우리를 즐겁게 한다. 쇼를 관람하는 관객과의 공간적 제한을 없애고 쇼 마지막에는 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쇼는 대기 시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발사들은 그들 각각의 솜씨 대결을 하며 고객을 기다린다. 관객도 함께 손님을 기다리며 앞으로 벌어질 최악의 상황에 대해 걱정한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기 획 공 연

5.10(목)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0,000원  
(회원 30%, 단체 20%할인)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90분(휴식없음)

티켓신청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전화 052)275-9623

## 최정원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



출연진

메인 사회자 : 최정원

5월10일 게스트 : 배다해, 뮤지컬갈라팀(뮤즈)

### 스위트콘서트 시즌5

2009년부터 시작된 스위트콘서트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자체 제작 공연으로 이번 2012년에 시즌5를 맞이하게 되었다.

3년간의 진행되었던 스위트콘서트는 이미 이 공연을 통해서 쟁쟁한 스타급 뮤지컬 배우들이 다녀갔다.

뮤지컬배우 백재현, 강효성, 김선영, 홍지민, 김효영에 이어 2012년에는 최정원과과의 만남을 시도한다. 엘레강스한 분위기의 최정원과 톡톡튀는 진행으로 울산에서도 이제 인기 유명인이 되어버린 김효영을 2012년 한해에 3회씩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 유명 뮤지컬 배우를 공연캐릭터가 아닌 실제로 만나다!!!

공연 안에서 극중 캐릭터로만 만날 수 있는 뮤지컬배우, 하지만 스위트콘서트에서는 마치 옆집 오빠나 친구를 만나는 듯한 느낌으로 배우와 만나볼 수 있다.

스위트콘서트는 제목그대로 관객에게 편안하고 달콤한 추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공연이다.

### 유명 뮤지컬 배우를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

"영화음악은 옛 여인의 향수이다"라고 말했던 세계적인 영화광 장 킵 고다르...

스위트콘서트에서 유명 뮤지컬 배우가 뮤지컬 속의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을 들려준다면 그 뮤지컬을 봤을 때의 감흥을 또다시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공연의 추억을 스위트콘서트로 정리하자.

### 배우들의 진솔한 이야기들!

(좌충우돌 실수담, 배우가 되기까지...)

배우들이 들려주는 무대 뒷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다. 수동적인 관람공연이 아닌 무대와 객석이 동화되는 자연스러운 만남!!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기 획 공 연

5. 25(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전석 30,000천원  
(회원 30%, 단체 20%할인)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90분(휴식없음)

티켓신청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전화 052)275-9623

## 2012 Jazz Concert!

# 전제덕, 민경인 Duo 콘서트

한국 최고의 재즈하모니카  
전제덕의 영혼의 울림!

### 시각 장애를 극복한 한국 최고의 하모니카연주자

전제덕은 시각 장애를 극복하고 하모니카 하나로 일약 한국 대중음악계에 스타로 떠오른 연주자다. 그는 그 동안 화려하면서도 역동적 연주를 통해 '하모니카의 재발견'이라는 찬사를 얻어왔다. 태어난 지 보름 만에 시력을 잃은 전제덕은 스승도 악보도 없이 오로지 청음에만 의지해 피나는 노력으로 '하모니카 마스터' 자리에 올랐다. 이미 3장의 음반을 발표한 그에 대해 한국의 언론과 평단에서는 "영혼의 연주" "한국 대중음악을 업그레이드 시킨 명반" "이 시대 가장 주목해야 할 음악적 도전" 등의 절찬을 쏟아냈다. 그의 데뷔음반은 지난 2005년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재즈 & 크로스오버'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제덕은 한국의 대표 통신기업인 KT TV광고 '꿈을 이루는 인터넷' 모델로도 출연한 바 있으며 지난 2006년 9월엔 MBC TV 특집 음악방송 '전제덕의 마음으로 보는 콘서트'의 진행과 연주를 맡아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재즈, 퓨전, 라틴, 소울, 팝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전제덕의 하모니카 공연은 감동으로 시작해 탄성으로 끝나는 최고의 공연으로 정평이 나있다. 속삭이듯 한없이 감미롭고, 때론 놀라운 테크닉으로 몰아치듯 터져 나오는 그의 하모니카 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이것이 정말 하모니카 소리인가?"하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 Jazz피아니스트, 작곡가 / 민경인

작곡가이며 재즈피아니스트 민경인은 "한국의 황금손가락 100개" 중 10개를 가지고 있으며, "건반 위의 스타일리스트"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하지만 민경인에게는 그 이상의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그의 화려한 타건은 많은 관객들을 매료 시켜왔으며 매 공연 때마다 수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 화려한 아티스트로 유명하다. 한번은 어느 공연에서 우리 귀에 친숙한 쇼팽(Fryderyk Chopin)의 녹턴Op. 9 No.2 클래식 곡을 재즈스타일로 즉흥적으로 연주 할 일이 있었는데 그의 손끝에서 표현되는 그만의 멜로디가 소름 돋을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그 당시 곡을 "앨범으로 담아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아름다운 즉흥연주였다

전제덕과 민경인은 음악적 소울메이트로써 많은 무대에서 서로가 호흡을 맞추어 왔으며 하모니카와 피아노 각각의 멜로디 악기가 어울리지 않을 듯한 이 만남을 전제덕, 민경인 이 둘 2명의 아티스트들이 한계를 뛰어 넘는선율과 감동의 메시지를 5월 25일 즉흥적으로 선사 할 것이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건반의 스타일리스트 민경인  
재즈피아니스트와의 듀오콘서트!!





해설이 있는 무용공연

## Shall We Dance

### 해설이 함께하는 무용공연!

오는 5월 31일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4월에 이은 울산문화예술회관세 번째 모닝콘서트로 해설이 있는 무용공연 < Shall we dance >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Shall We Dance에는 해설이 있습니다!

'춤의 입문 편'이라 할 수 있는 <Shall we dance>는 귀에 익숙한 곡들과 세계의 대표적인 춤들을 쉬운 해설과 함께 배워보는 공연이다. 지금까지 어렵게 느껴졌던 고전 무용과 이국의 춤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감상의 맥을 짚어보고 춤에 대한 교양을 쌓을 수 있게 해 주는 유익한 공연이다.

### 여러 장르의 춤과 음악, 해설을 한 자리에!

유럽의 발레를 비롯하여 왈츠, 폴카, 탱고 등 세계적인 춤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기회. 한 번쯤 들어 보았던 유명한 클래식 무용 곡 들과 실제 무용을 한 자리에서 보면서 세계의 춤과 음악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 <헝가리무곡>을 시작으로 <볼레로>, <여인의 향기>, <All That Jazz>, <I feel pretty>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에 맞춰 곡 해설과, 무용으로 관객들과 호흡할 예정이다.

본 공연 안무는 사(인)댄스프로젝트의 이정연 단장이, 연출은 아델라오페라단의 안주는 연출이 맡았으며 사(인)댄스프로젝트 무용단이 출연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인다.

예매와 공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전화(052-275-9623)를 이용하면 된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 한국미술 100년, 거장 35인 특별전

## 한국 근·현대미술 대표작가 35인의 작품 70점 초청전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에서 지난 4월 20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한국 미술 100년, 거장 35인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김기창, 김창열, 김환기, 김홍수, 박수근, 이우환, 이응노, 이중섭, 장욱진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뛰는 거장 35인의 작품 총 70점이 울산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미술의 역사를 '한국회화의 근대화화'와 '현대 한국화', '근·현대 서양미술의 정착과 확장', '추상미술로의 전이와 세계화' 등 세 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고종과 순종의 어진을 그렸던 김은호, 그의 제자로 고열로 청각을 잃었으나 뛰어난 예술혼으로 스승을 뛰어넘어 큰 족적을 남긴 김기창 화백, 그리고 일제강점기 여성화가로 이름을 날린 그의 부인 박래현 화백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는 보기 드문 기회가 마련되었다. 전통회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창작열을 불태웠던 노수현, 변관식, 이상범 화백의 작품을 비교해 보기를 권한다. 담백한 전통회화에 화려한 색채를 입혀 독창적인 화풍을 만들어낸 박생광,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통해 전통회화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근·현대 서양미술의 정착과 확장'에서 소개하는 화가들은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미술의 다양한 경향을 접하고 여러 가지 조형적인 실험을 통해 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내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우리 역사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이들은 민족적 아픔과 개인적인 슬픔을 창작열로 극복하고 놀라운 작품을 탄생시켰다.

김환기, 김홍수, 도상봉, 박수근, 이중섭, 이대원, 장욱진 화백 등 교과서와 책,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해 친근한 거장의 작품을 대면하는 즐거움은 어린 학생들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에게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인 최초의 도불화가 이종우 화백, 1951년 프랑스로 이주 2009년 작고하기 전까지 프랑스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활동한 이성자 화백의 작품은 그동안 접하기 쉽지 않았던 터라 이번 전시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 '추상미술로의 전이와 세계화'에서는 한국을 뛰어 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창열, 박서보, 윤희근, 이우환, 정창섭 화백의 작품이 전시된다. 한국적인 것을 넘어서 세계인에게 통하는 예술관으로 해외미술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의 작품은 우리 미술에 대한 자부심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예술회관에서는 전시기간 동안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작품 관람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6시, 총 4번 정규 해설시간이 있다. 이 시간에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은 누구나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글 | 박영진(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 전시구성

PART1 | 한국 회화의 근대화와 현대 한국화  
김기창, 김은호, 노수현, 박래현, 박생광, 변관식, 이상범, 이응노, 장우성, 천경자

PART2 | 근·현대 서양미술의 정착과 확장  
권옥연, 김환기, 김홍수, 남 관, 도상봉 류경채, 문 신, 박고석, 박수근, 박영선 오지호, 유영국, 윤중식, 이대원, 이마동 이성자, 이종우, 이중섭, 장욱진, 한 묵

PART3 | 추상미술로의 전이와 세계화  
김창열, 박서보, 윤희근, 이우환, 정창섭



02



04



03



05



06



07

01 유영국\_무제 02 이종섭\_아이들 03 천경자\_아마존 야그아족 04 이우환\_바람과 함께  
05 김기창\_명과 십일우 06 변관식\_설경산수 07 이상범\_설경산수

월드 발레리나 강수진과 친구들 - 고품격 발레 & 뮤지컬의 만남

# Sue Jin Kang

*with Friends*



초청 아티스트

Jason Reilly

Marijn Rademaker

LDP

장운규

전효정

엄재용

황혜민

2012년 7월 24일(화)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문화예술회관 배급\_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문의\_ 052)275-9623 www.ucac.or.kr



Arts Friend

**Part.1 예술을 말하다**

도르트문트 콘체르트하우스

오페라의 역사 I

드보르작 교향곡 9번 e단조 Op.95 〈신세계로부터〉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빛내는 숨은 주역들

**Part.2 UCAC는 지금**

톡! 톡! 톡!

**Part.3 5월의 공연·전시**

공연·전시 가이드

5월의 공연·전시



# 도르트문트 콘체르트하우스

글 | 이장직

중앙일보 음악전문 기자를 역임하고, 『위기의 아트센터』, 『레인보우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월간 객석> 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 독일 도르트문트의 자랑거리 '콘체르트하우스'

2006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이탈리아는 홈팀 독일과 싸워 연장전 끝에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다. '아주리 군단'과 '전차 군단'이 맞붙은 곳은 도르트문트 베스트팔렌 슈타디온이다. 1909년 창단해 오랜 전통과 실력을 자랑하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홈경기장이다. 이 팀은 1995~6년 분데스리가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1997년 유럽 챔피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인구 60만명으로 독일에서 여덟 번째로 큰 도시이자 베스트팔렌주의 최대 도시인 도르트문트의 자랑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축구팀 말고도 또 하나 있다. 2002년 9월 13일 도르트문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개막 연주로 문을 연 도르트문트 콘체르트하우스다.

## 시민의 요구로 건립된 도심 재개발의 신호탄

도르트문트는 전통적으로 석탄과 철광석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철강업이 발달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공습으로 대부분의 도심이 파괴

되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제철소와 맥주 공장을 발판으로 재도약을 시도했으나 그마저 1960년대를 정점으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심포니 전용홀 건립 추진을 위한 시민 단체인 '도르트문트 문화 기부'가 공식 출범한 것은 1992년이다. 문신 가게와 섹스 숍, 마약 카페, 도박장이 즐비했던 브뤼크 거리에 건물 부지를 마련했다. 1978년 학생 시위대가 골목을 가득 메웠던 독일 도르트문트 브뤼크 거리는 시민들의 기피 대상이었다. 한때 인파가 붐비던 거리가 마약과 폭력이 판을 치는 사창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화 기부'는 시의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에 문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며 공청회를 열어 시 당국을 압박하는 여론을 조성했다. 결국 시 당국이 공공예산을 편성했고 시민사회도 함께 자선 음악회와 모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콘서트홀 건립 계획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02년 9월 문을 연 도르트문트 콘체르트하우스는 도심 재개발의 신호탄이었다. 덕분에 문신을 새겨주는 곳과



섹스 스킨이 하나 둘씩 사라졌고 골목 건너편엔 스페인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 보석 가게, 패션 스토어 등도 차례로 들어섰다.

콘서트홀은 고급 인력들을 끌어들이는 '문화적 미끼'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슬럼가를 재개발하는 '충격 요법'으로도 안성맞춤인 것이다. 도르트문트 콘체르트하우스는 시에서 건축비를 부담하고 연간 운영비는 민간 부문의 지원을 받는다.

객석수는 1,550석(칸막이 커튼을 내리면 900석)이며, 도심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40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외벽을 시공했고, 높이 25m의 무대 위 천장에는 12개의 음향 반사판이 달려 있는데 공연 장르에 따라 잔향시간을 조절한다. 28개 조각으로 된 무대 바닥의 높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무대 정면에는 도르트문트 문화재단이 제작비를 부담한 파이프 3,565개짜리 콘서트 오르간이 눈길을 끈다. 음향 설비나 음악회 분위기가 매우 좋아서 이곳 무대에 한번 서본 연주자들은 연주가 끝난 뒤 즉석에서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다.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주역을 맡은 벨리니의 '노르마' 등 콘서트 형식의 오페라도 자주 상연한다.

#### 다양한 볼거리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

도르트문트 콘체르트하우스는 로비를 종일 개방해 시민들이 낮 시간에도 커피를 마시면서 CD가게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명지휘자들의 초상화가 벽면을 가득 메운 지하 레스토랑 '스트라빈스키'는 아침부터 밤늦도록 문을 연다.

무료 로비 음악회, 합창 강좌 프로그램도 인기다. 커피와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4층 규모의 로비는 도르트문트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자리 잡았다.

콘체르트하우스 곳곳에는 회화와 조각 작품이 자리 잡고 있어 보는 즐거움도 더해준다.

모두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돈으로 구입한 작품들로 로비에는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레온스카야, 지휘자 켄트 나가노, 작곡가 마티아스 핀처 등 도르트문트 콘체르트하우스의 '상주 아티스트'의 모습을 담은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고 이와 함께 서커스 론칼리의 매니저이자 '론칼리스 사계' 쇼의 제작자인 베른하르트 파울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에센 출신으로 쾰른에 살고 있는 화가 올리버 요르단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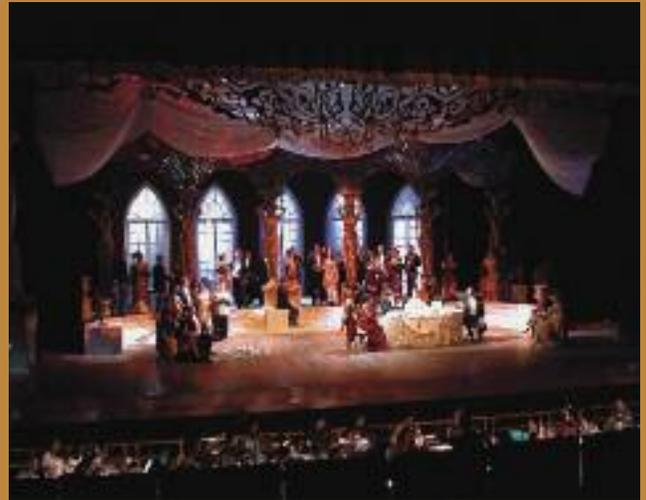
로비 2층에는 구스타프 말러, 아놀드 쇤베르크,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등 작곡가 3명을 그린 초상화 3점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역시 올리버 요르단의 작품이다. 로비 곳곳에는 대형 사진이 걸려 있다. 쾰른에 거주하는 사진 작가 빔 콕스와 아들 모리스 콕스가 찍은 도르트문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프로필 사진이다.

도르트문트 시내 곳곳에는 날개 달린 코뿔소 조각이 있는데 도르트문트 콘체르트하우스도 예외는 아니다. 높이 1.8m짜리 철제 조각이 바깥 테라스에, 이보다 좀 작은 크기의 코뿔소 조각이 안쪽에 있다. 슈테판 발켄홀의 작품이다. 건물 계단은 물론 바깥 외벽에도 LED(반도체 조명)를 설치해 멋진 야경을 연출해낸다.

# 오페라의 역사 I

글 | 송중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무용과 오페라> 발행인 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

우리나라도 이제는 오페라 인구가 꽤 많이 늘어났다.

얼마 전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된 '라보엠' 같은 작품은 그 예술적 완성도가 높아 전회 매진사례를 기록하기도 했다. 우리가 오페라를 알게 되면 그 매력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진다.

## ‘고대 그리스 연극’ 인류가 만든 최고의 종합예술인 오페라의 원조

오페라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오페라의 역사는 400년이라고 하지만, 이미 수천 년 전 그리스 시대 때부터 쌓아온 다양한 예술적 결실이 오늘날의 오페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종합예술인 오페라의 발전에 기여한 나라는 이태리, 프랑스, 독일-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정도이다. 하지만 진정한 오페라의 발상지를 찾아가보면 고대 그리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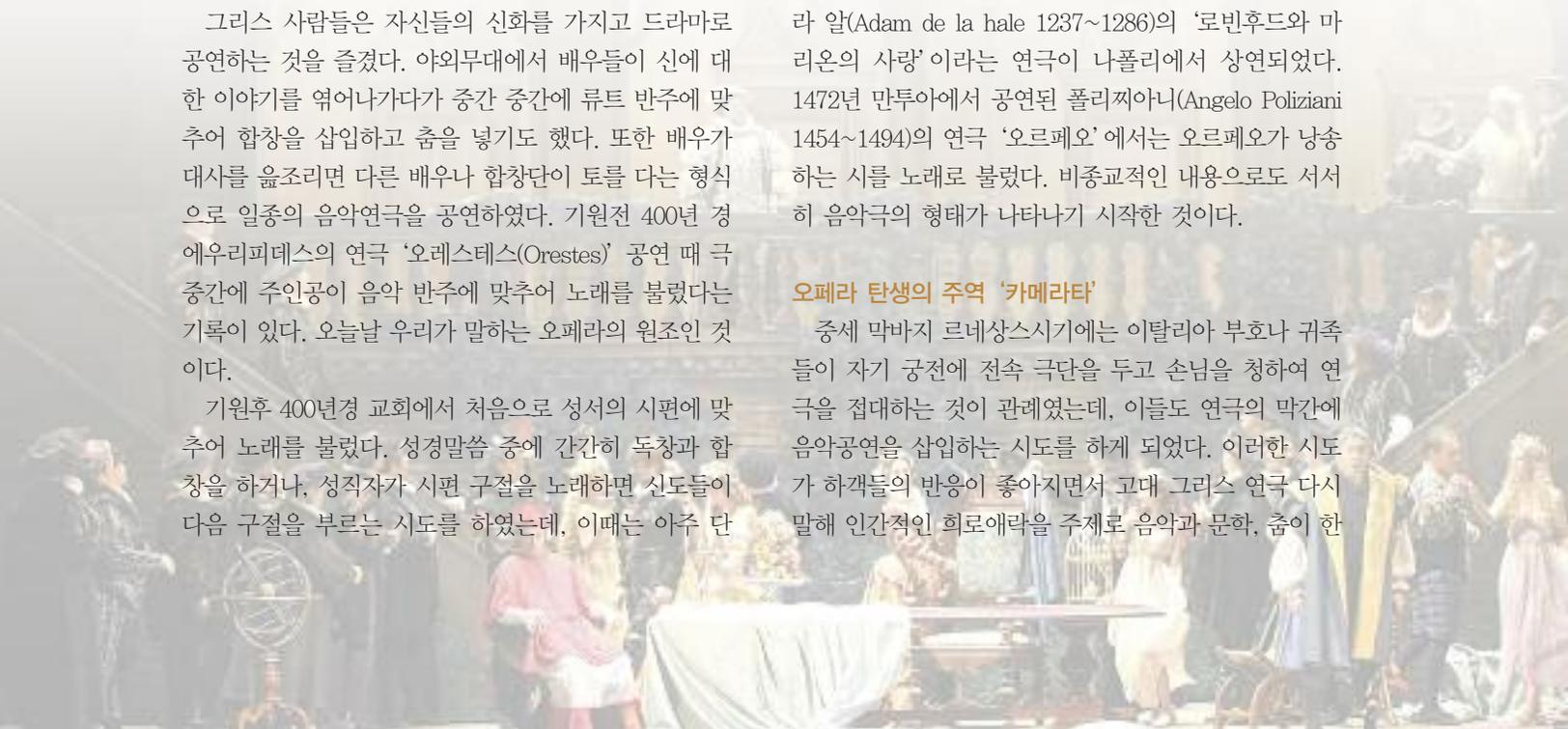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화를 가지고 드라마로 공연하는 것을 즐겼다. 야외무대에서 배우들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나가다가 중간 중간에 리트 반주에 맞추어 합창을 삽입하고 춤을 넣기도 했다. 또한 배우가 대사를 읊조리면 다른 배우나 합창단이 토를 다는 형식으로 일종의 음악연극을 공연하였다. 기원전 400년 경 에우리피데스의 연극 ‘오레스테스(Orestes)’ 공연 때 극 중간에 주인공이 음악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오페라의 원조인 것이다.

기원후 400년경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서의 시편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성경말씀 중에 간간히 독창과 합창을 하거나, 성직자가 시편 구절을 노래하면 신도들이 다음 구절을 부르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때는 아주 단

순한 노래와 합창이었지만 샤를마뉴 대제(768~814) 때 이러한 예배 형태가 유행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런 방법이 신도들의 호응을 얻자, 한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 나오는 의상을 입고 배경을 그려 넣은 무대에서 성경을 전하고 송가도 불러주게 되었다. 중세교회의 이런 시도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렇게 음악을 첨부한 종교악극을 근대적인 오페라의 시조라고 간주한다. 물론 종교적인 내용이 아닌 음악극도 공연되었다. 1280년에는 음악 반주에 맞추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아담 드 라 알(Adam de la hale 1237~1286)의 ‘로빈후드와 마리오의 사랑’이라는 연극이 나폴리에서 상연되었다. 1472년 만투아에서 공연된 폴리찌아니(Angelo Poliziani 1454~1494)의 연극 ‘오르페오’에서는 오르페오가 낭송하는 시를 노래로 불렀다. 비종교적인 내용으로도 서서히 음악극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 오페라 탄생의 주역 ‘카메라타’

중세 막바지 르네상스시기에는 이탈리아 부호나 귀족들이 자기 궁전에 전용 극단을 두고 손님을 청하여 연극을 접대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들도 연극의 막간에 음악공연을 삽입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가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지면서 고대 그리스 연극 다시 말해 인간적인 희로애락을 주제로 음악과 문학, 춤이 한





데 어우러진 연극을 리바이벌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1597년 피렌체의 카메라타 구성원들에 의해 고대 그리스 연극예술의 이상과 원칙을 재현하면서 음악을 좀 더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페라가 탄생되었다.

‘카메라타(camerata)’는 작은방 이라는 뜻을 가진 플로렌스의 귀족들, 예술가, 문인들의 예술동호회모임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재현하려는 음악적 연극이 어떤 형태로 공연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게 되는데, 대사에 약간의 음악 반주만을 가미한 ‘레시타티보’를 사용하여 중요한 대사의 전달이 명료해지게 하였고 ‘레시타티보’ 만으로는 음악적 분위기는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독립적인 노래 ‘아리아’를 부르게 하여 음악적인 효과와 극적인 효과를 살렸다. 이런 카메라타의 생각은 초보적인 음악극 형태가 현대적인 오페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고, 이러한 기준에 맞춘 최초의 오페라 ‘다프네’(야코보 페리 작곡, 리누치오 대본)가 1598년 탄생한다.

**‘오페라’ - “작품들이 모여 있다”라는 의미,  
라틴어 작품(Opus)의 복수**

카메라타 동호인들은 음악을 중심으로 한 연극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데 관심이 모아지자, 연극 속에 음악작품들이 모여 있다고 하여 라틴어로 ‘작품들’(opus-작품의 복수)이라는 의미의 ‘오페라’로 명칭을 붙이기로 한 것이다. ‘다프네’는 현재 대본과 연출 부분만 남아있고 중요한 음악 부분은 소실되었는데, 연출 노트에 의하면 무시무시한 뱀이 등장하고 뱀이 몸을 흔들고 날개를 퍼덕이면 입에서 불이 나오도록 기계장

치를 했다고 되어있다.

1600년에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 ‘유리디체’(페리 & 카치리 작곡)가 프랑스 앙리4세와 피렌체의 마리아 드 메디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플로렌스에서 공연되었다. ‘유리디체’는 음악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그때까지의 중세 음악극에 비하면 가치 혁명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며 오페라의 본격적인 시발점을 만들어준 작품이다.

**오페라의 초창기를 이끈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오페라 탄생초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작곡가는 몬테베르디(1567~1643)이다. 몬테베르디는 오페라가 음악뿐 아니라 연극이기에 무대도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역동감 있는 무대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1600년 대 초반의 이태리 무대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다. 기상천외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주인공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장치도 만들었으며, 무대배경이 수시로 회전하기도 하고, 연기나 불을 피워 화산을 연출하는 등 스펙터클하고 화려한 색감으로 음악은 둘째 치고라도 일단 무대만으로도 객석의 관객들을 압도했다.

몬테베르디는 카메라타의 오페라에 대한 기본규칙을 재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1607)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사용해서 음향효과를 높였으며, 감정이 내포된 아리아를 만들어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몬테베르디의 ‘포페아의 대관’(1642)은 그 이전까지의 실화가 아닌 신화, 전설, 민화, 무용담 등을 주제로 한 오페라와는 달리, 역사적 실화를 배경으로 한 최초의 오페라이다.

# 드보르작

## 교향곡 9번 e단조 Op.95 〈신세계로부터〉

글 | 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 진행자, 라디오·TV 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Going home, going home I'm going home~

이 곡은 학창시절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2악장 선율에 붙여 참 많이 흥얼거렸던 노래다. 그것 뿐인가.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영화 '썬밤 뻘뻘' 하며 긴장감을 주었던 존 윌리엄스의 음악도 사실 이 곡의 4악장을 모티브로 해 만들어진 곡이다. 이렇듯 40여 분간 이어지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는 이미 상당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곡이고, 덕분에 우리는 이 곡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이 곡은 1893년 12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의해 카네기홀에서 초연됐을 때부터 인기가 많았다. 초연 당시 감동에 복받친 부인들의 흐느낌이 터져 나왔을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고, 특히 마지막 악장이 끝났을 때는 한참동안 기립박수가 나왔다고 한다. 후일 드보르작이 이 때의 뜨거운 반응에 “왕이 된 기분이 들 정도”였다고 회상했는데 그의 으쓱한 모습 눈에 그려진다.

안토닌 레오폴드 드보르작(1841~1904). 그는 체코 국민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메타나의 뒤를 이어,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 서부지방의 전통음악을 더욱 발전시켰다. 오스트리아에 300년 동안이나 지배당하면서도 음악을 좋아하는

기질을 이어나갔던, 그것도 억압당한 민족의 슬픔이나 한이 아닌, 낙천적인 보헤미안의 기질을 살려 즐거움과 행복함을 춤과 축제로 표현하는 자신의 조국 보헤미아와 그 민족 보헤미안을 그는 무척이나 사랑했다. 그래서 드보르작은 자신이 속한 민족의 정신을 늘 작품 속에 담아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가 지향한 작품 세계이다.

드보르작이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작곡한 것은 1893년 당시 유럽에서 신세계라 부르던 미국에 체류할 때였다. 프라하 음악원의 작곡과 교수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미국의 뉴욕 내셔널 음악원 원장 자리를 제의받게 됐다. 교수 월급의 세 배가 넘는 거액의 급료는 물론이었고 4개월에 걸친 휴가와 한 해에 10회 지휘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덧붙여 그를 유혹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날 결심이 서지 않아 여러 차례 거절했다. 그리고 말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프라하 음악원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도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앞서 얘기했던 좋은 조건들과 창작, 연주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판단에 결국 1892년 9월 15일 뉴욕으로 향했다.

드보르작은 처음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분주한 많은 사람들로 활력이 가득한 뉴욕 거리의 모습과 기차로 대

표되는 현대기술문명의 발전에 깊은 감흥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드보르작은 기차를 매우 좋아하는 기차광이었다. 드보르작이 이 곡을 작곡할 때 증기 기관차 소리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강한 드럼 소리와 함께 서서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가는 신세계 교향곡은 마치 기차 여행을 하는 듯하다. 사실 그가 미국행을 결심한 이유에 미국의 기차와 방대한 철도 시스템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몫을 차지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뉴욕의 내셔널 음악원 원장으로 있을 당시 드보르작은 기차의 발차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기차역으로 달려가 떠나는 기차를 유심히 관찰했고 자신과 관계없는 열차 시간표까지 줄줄 외웠다고 하니, 그의 기차 사랑은 알만하다.

하지만 어느덧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자 고향에 대한 향수가 찾아들었다. 그래서 드보르작은 보헤미아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었던 아이오와주의 시피르빌에 찾아가게 됐고 그곳에서 동향의 사람들을 만나며 오랜만에 고국의 아늑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륙의 활기와 광대함, 그리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잘 섞어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 곡을 신세계 교향곡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원래 출판된 제목은 <Symphony No.9 in e minor, Op.95>이고 나중에 덧붙여진 부제는 정확히 "From The New World"로 우리말로는 "신세계에서" 혹은 "신세계로부터"라 불려야 한다. 언뜻 생각하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만 "신세계"와 "신세계로부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곡이 단순히 미국을 느끼고 미국을 묘사한 음악이라면 미국을 지칭하는 의미로 "신세계"라 부제를 붙이는 게 맞지만 이 곡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미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담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그 연모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에 "신세계로부터"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이 작품은 체코적이면서 동시에 미국적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방인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969년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 할 때 이 곡을 듣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뉴욕 필도 자신들의 대표곡으로 이 곡을 연주하고 있다.

드보르작은 지휘자 네르바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교향곡을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신세계라 일컬어지는 것은 도전 없는 가 볼 수 없는 곳, 동경의 대상이지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이란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드보르작이 조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세계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린 그의 최고의 걸작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도 살아오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신세계가 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언젠가는 꼭 대면하고 싶은 순간들을 떠올리며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볼륨 높여 들어본다.

*Poco più mosso*



##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

글 |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만물이 새로이 태어나는 계절인 봄은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칭송받아왔고, 봄을 주제로 한 그림도 적지 않게 있다. 생명이 약동하고 사랑이 꽃피는 계절인 봄이라는 주제를 서양미술사에서 가장 풍성하고도 신비하게 다룬 작품으로 르네상스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의 <프리마베라(Primavera: '봄'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를 꼽을 수 있다.

화면에는 오렌지가 풍성하게 열려 있고, 바닥에도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한 숲을 배경으로 여덟 명의 인물들이 죽 늘어서 있다.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늘어서 있는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석도 연구자들마다 다양하지만 봄의 풍요함과 사랑의 승리를 예찬하는 것이라는 의견에는 이의가 없다. 그림을 주문한 이는 르네상스 시기 피렌체 공화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력한 가문인 메디치가문의 수장인 로렌초 일 마니피코(Lorenzo il Magnifico)이고, 조카의 결혼 선물로 이 그림을 주문했다고 알려져 있다.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축복하는 데에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거주하는 영원한 봄이 제격이었을 것이다.



P r i m a v e r a

그림을 오른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 온몸이 파랗고 날개 달린 남성으로 표현된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몸이 비칠 정도로 얇은 흰 옷을 입은 님프 클로리스를 붙잡으려 하고 있다.

그는 불을 잔뜩 부풀려 봄바람을 뿜으려 하고, 그의 재빠른 움직임을 말해주듯 나무도 크게 휘어져 있다. 그 옆에는 아름다운 젊은 여인으로 표현된 플로라가 꽃의 여신답게 꽃무늬 옷을 입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목에도 꽃목걸이를 두른 채 치마폭에 넘치도록 가득한 활짝 핀 꽃을 흠뻑하고 있다. 일견 이 두 여인은 각각의 인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보티첼리는 대지의 님프 클로리스가 꽃의 여신 플로라가 되는 이야기가 담긴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에 나오는 봄의 정경을 묘사하려 했다. 봄을 가져오는 제피로스의 손이 클로리스에 닿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 봄꽃들이 흘러나오고, 그녀는 꽃의 여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즉 클로리스의 옷처럼 하얀 눈으로 덮여 있던 대지가 봄바람을 맞고 다시 살아나 꽃이 만발한 봄이 오고, 계절이 순환함을 신화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보티첼리는 님프의 입에서 흘러넘치는 봄꽃이 플로라 여신의 옷의 무늬가 되게 하여 이 둘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있다.

가운데에는 비너스 여신이 약간 뒤로 물러서서 홀로 서있는데, 양쪽의 두 무리와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그 옆에는 명량과 아름다움, 즐거움을 상징하는 삼미신이 투명한 정도로 얇은 옷을 휘날리며 서로 손을 잡고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다. 비너스

의 머리 위로는 비너스의 아들이자 사랑의 신인 큐피드가 눈을 가린 채 그것을 맞은 이가 사랑에 빠지게 하는 불화살을 이들을 향해 겨누고 있다. 이러한 동안 그림의 맨 왼쪽에는 헤르메스 신이 그를 상징하는 카두세우스 지팡이를 휘저어 이 영원한 봄의 정원에서 먹구름을 몰아내고 있다. 이렇게 사랑으로 물든 봄의 대지에는 갖가지 꽃이 만발하다.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여기에는 총 500여종의 식물이 그려졌는데, 이 중 꽃만 해도 190여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봄과 사랑의 예찬을 다룬 그림을 보다 깊게 살펴보면, 당시 피렌체의 지적 분위기를 지배한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 교리와 고대 그리스 철학을 결합시키려 한 신플라톤주의는 아름다움이야말로 본질을 넘어선 최고의 가치이고, 여기에 신의 의지가 구현돼 있다고 보았다.

메디치 가문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은 신플라톤주의자인 피치노는 성모마리아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를 동일한 존재로 보았고, 이는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배경의 오렌지 숲은 화면 중앙에 위치한 마리아-비너스의 머리 뒷부분에서 둥근 아치처럼 뿜려 그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이는데, 이는 기독교 성화의 광배를 연상시킨다. 그녀는 한 쪽 손을 들어 이 모든 사랑과 새로운 사랑이 꽃피는 봄의 계절의 모든 정경을 축복하는 듯하다.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을 통해 보티첼리는 유일신을 중심으로 한 중세를 벗어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 부활했음을, 다시금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빛내는

# 숨은 주역들

이번 시간에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말 그대로 빛을 내는 숨은 주역들을 만나봤다.



현재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종사하는 청소인원은 청소반장님을 포함하여 12명(여자9명, 남자3명)이며, 그중 회관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두분(김매자, 이영화)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거친 손과 주름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는 듯 했다. 김매자씨는 회관 개관당시인 1995년부터, 이영화씨는 1996년부터 쪽 회관의 청결을 담당하셨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던가 예술회관의 산 증인으로서 많은 일들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중 가장 보람 있었던 적이 언제인지 물어보았다. 두분 다 주저 없이 말씀하시길 다른 공연장에 비교하여 제일 깨끗하단 소리를 들었을 때란다.



◀ 김매자

이영화 ▶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에 위치한 타 시도 회관에 비교하여 깨끗하던 소리를 오며가며 들었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다고 했다. 16년이 지난 공연장에서 최근 생긴 공연장과 견주어 손색없는 청결상태가 될려면 보통의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는 힘들법도 한데 참 대단하던 생각이 먼저 든다.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인가라는 물음에 역시 예상 했던대로 대공연장 아이들 공연을 마쳤을 때였다. 다른 스태프들은 공연을 마치면 흥분해지지만 이분들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엄청난 물량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고 공연장 객석부터 무대뒤 청소까지 도맡아서 처리한다. 물론 회관도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여러종류의 쓰레기를 분류해야하고, 화장실 청결제며, 휴지까지 제때 확인해야한다. 특히 축제시즌이 되면 야외까지, 일일이 나열하는 것도 벅겁다.

이분들이 몸담는 예술회관의 특성상 정말 다양한 공연을 여과없이 접하게 되는 점을 주목하여 이런 질문을 해봤다. '공연을 보고 듣는 눈이 남다르실것같다.' 돌아온 대답은 '우리는 그런거 잘 몰라요 하지만 대충 리허설할 때 청소하면서 귀를 열어놓으면 관객이 좀 오겠구나 안 오겠구나 정도는 알죠 하하' 전문적인 음악적 지식은 없어도 항상 접하게 되는 장르라면 웬만한 준프로정도는 되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기억에 남는 공연에 대해 물어봤다.

최근에는 '미스사이공', '막돼먹은 영애씨', 그리고 시립예술단 공연인 '나는 무용수다'였고, 악극 '타향살이'도 인상깊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연을 편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깨너머로, 또는 무대 뒤에서 잠깐 잠깐 듣는 정도라고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지만 공연장에서 좀전에

흘렀던 휴지조각도 뒤돌아보면 사라지고 없다. 그만큼 그들은 언제나 관객 모르게 항상 스태프이다.

회관을 거쳐간 수많은 관객중에서 인상 깊은 관객은 없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의외였다. '관객은 아니지만 교향악단 김홍재 지휘자 선생님'이었다. 왜 그런가 놀라며 물어보니 제일 화장실 매너가 좋으시란다. 그리고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가끔 지휘자방을 청소하다 마주치면 특유의 눈웃음을 날려주시니 제법 청소하시는 분들 사이에 선 팬도 있는 것 같았다.

제일 꼴불견인 관객도 농담삼아 물어보니 남녀불문하고 화장실바닥에 침뱉는 관객들, 그리고 여자화장실에 다 큰 남자에 데리고 오는 여성관객들, 그리고 아주 기쁨 화장실에 담배 피는 관객도 있었다. 울산시민의 문화 의식이 이 정도인줄은... 우리의 자식에게 재미있고 아름다운 공연장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찾은 공연장의 화장실에서 '엄마 여자화장실인데 내가 왜 들어가?' '넌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라고 한다면 과연 참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문화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공연장에서 도덕의식은 목마름에 허우적대고 있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의 실태가 되어선 안되겠단 생각이 들었다.

글 | 권혁민(울산시립예술단 홍보 및 아트프렌드 기자)

버리는 사람이 있기에  
치우는 사람이 있다지만,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기본 에티켓은 공연장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 톡! 톡!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안내된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으로 공연 티켓도 받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일석이조!

지난 3월 23일(토), 24일(일)에 있었던 『막돼먹은 영애씨』 공연 감상평을 작성하여  
5월 26일(토) 네이버퍼포먼스 『비밥』 티켓을 획득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 ● 양수정 | 남구 선암동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뮤지컬! 이번에는 막돼먹은 영애씨라는 뮤지컬 공연으로 문화 예술회관을 방문하게 되었네요. 빠르게 예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앞좌석들은 다 차 버렸더라고요. 회원바코드를 통해 바로 티켓을 발급받았습니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자주 사용하는 카드에 붙여놓고 쓰려구요~ 그리고 드디어 공연 시작! 영애씨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드라마만큼 재밌었어요~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어서 좋았네요~ 가격도 저렴했구요^^ 이런 공연 예술회관에서 더 자주 기획해 주시면 좋겠어요^^

## ● 이영경 | 남구 달동

울산에도 점점 다양하고 재밌는 공연이 많아져서 신나고 기쁜 마음에 이번에도 당장 공연예매! 고작 몇 시간 지나고 예매했는데도 좋은 자리는 빠지고 1층 사이드 당첨! 공연당일, 자리에 앉자마자 정신없이 공연에 집중! 직장인이라는 공감에 푹 빠지고, 관객들의 신나는 호응에 더욱 재밌더군요. 끝나는 순간이 오니 아쉬움에 쉽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즐거웠던 영애씨, 계속 다양한 스토리로 뮤지컬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

## ● 장희영 | 울주군 범서읍

오랜만에 사회 친구이자 지금은 둘도 없는 베스트프렌드를 만났습니다. 옆에서 깔깔거리며 박수치고 신나하는 친구를 보니 왜그렇게 흐뭇한지~ 주위를 둘러보니 직장인들 모두 막연히 뮤지컬을 보고 '맞아맞아!' 하는 제스처와 박수와 호응~ 역시 소공연장의 공연은 관객과의 호흡이 장점! 아무튼 울산문화예술회관은 기분전환하기에 너무 좋은 곳! 간만에 찌든 사회생활을 속풀이 하듯 확~ 풀고 갔습니다^^

## ● 김하나 | 남구 신정 3동

친구와 함께 뮤지컬 나들이~ 평소엔 부산까지 왔다갔다했는데, 울산에서 이렇게 재밌는 뮤지컬을 보다니! 최고였어요~ 불이 꺼진 후, 눈 앞에 진짜 영애씨가!! 솔직담백한 화사스토리~ 지금도 머릿속에 노래가 떠오르네요. 재미와 감

동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뮤지컬! 친구와 함께 박수치고 웃으며 보다 보니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취업준비생인 우리, 영애씨처럼 멋진 여성이 되고싶네요! 앞으로의 일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 ● 박미희 | 경남 창원

다른 지방에 사는 티라 뮤지컬이나 연극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23살 직장인입니다^^ 공연을 보는 내내 직장인인 저를 공감시키는 내용들이 쑥쑥 귀에 들어오더군요~ 마지막부분에서 이력서를 보며 이영애씨가 독백하는 부분, 저도 직장을 옮기면 서 제 이력서를 써 내려갈 때 느꼈던 감정을 현수연이가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에.. 조금 울컥하게 만들더군요^^ 역자가 아닌 저절로 반응해 박수를 치고 있고, 저절로 환호성이 나오는 그런 공연! 적절한 웃음과 재미, 감동까지 주는 멋진 공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 윤성자 | 북구 매곡동

토요일 마지막공연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좋았다~짬있었다~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이 아직 입에서 나온답니다. 주부인 저에게 어느 공연과도 바꿀 수 없는 재미와 추억을 주셨답니다~ 티브에서 시즌10까지 나왔는데.. 공연도 시즌10까지~ 공연의 일정이 이틀뿐이라 아쉬움이 남아요. 영애씨, 다시 꼭 만나고 싶어요!

## ● 정은주 | 동구 동부동

영애는 그냥 우리 친구이며 또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토록 그녀에 열광하며 공감하는지 모른다. 티비에서 본 영애를 뮤지컬로 직접 보면서 답답한 현실엔 같이 분통을 터트리 고 지원이와 수다 떨 때는 내가 친구와 이야기 하는 것처럼 마 구마구 이야기 하고 싶었다. 그리고 영애가 멋진 뮤지컬 배우 들 보다 훨씬 더 현실성 있고 멋졌다. 평탄했던 중고등학교때 와 달리 치열하고 다사다난 했던 내 20대를 지나 방황의 30 대초를 보내는 지금.. 보는 내내 자신과 같았던 영애를 보며 같이 웃고 같이 울었다. 영애를 통해 난 또 한 번 함치게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몇 번 넘어지더라도 또 우뚝 일어나는 오뚜기가 되겠다고~ 또 한 번 보고 싶은 그녀 이영애!!!!

※ 공연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PERFORMANCE

#### 뮤지컬 “광화문 연가”

일 시 | 5. 4(금) 19:30 / 5.5(토) 15:00 19:30  
5. 6(일) 15: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V 110,000원 / R 99,000원  
S 77,000원 / A 55,000원

주 최 | (주)울산방송  
문의처 | 275-9623

##### ■ 공연개요

고 이영훈 작가의 아름다운 선율위에 그려진 세 남녀의 엇갈린 멜로디

##### ■ 프로그램

- 무대 위엔 80년대 광화문 거리, 골방 작업실이 있는 라이브 카페 블루아지트가 보인다. 골방에서는 이미 유명 작곡가인 상훈과 그를 따르는 현우 그리고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고, 블루 아지트 무대에는 여주의 직장동료들이 진국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뒤늦게 블루아지트에 도착한 여주. 분위기에 휩쓸려 상훈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 놀이패 동해누리 정기공연

일 시 | 5. 9(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놀이패 동해누리

문의처 | 244-3938



##### ■ 공연개요

풍물쟁이들의 브라질리언 퍼커션으로의 변신. 열정의 라틴 리듬과 풍물가락의 어울림

##### ■ 프로그램

- 1장 : 영상
- 2장 : 디저리두, 멜로디언, 하피드럼, 젬베, 휘슬 악기로 자연을 표현
- 3장 : 라틴 리듬과 우리의 풍물 가락을 함께함

#### 2012 사랑의 효 콘서트

일 시 | 5. 10(목) 14: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문화방송(주)

문의처 | 290-1205

##### ■ 공연개요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울산지역 내 노인계층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문화예술행사

##### ■ 프로그램

- 전통무용 & 민속공연
- 지역가수 및 초청인기가수 공연

####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일 시 | 5. 12(토) 14:00 17: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 30,000원 / S 20,000원

A 10,000원

주 최 | 울산오페라단

문의처 | 247-7751

##### ■ 공연개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림형제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뮤지컬 오페라 형태로 재미있게 구성하여 공연

##### ■ 프로그램

- 독일 어느 지방의 깊은 숲속. 빗자루를 파는 아빠, 엄마가 일보러 나간 뒤 헨젤과 그레텔 남매가 집을 지키며 놀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게 일찍 돌아온 엄마에게 쏘아진 우유 대신에 숲에 가서 딸기를 따오라고 보내진다.
- 숲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은 아이들처럼 생긴 과자로 만든 집을 찾았는데 집 안에서 마귀할머니 나와 주문을 외워 헨젤을 큰 새장에 다두는데...



### 가족뮤지컬 “� 특별하단다”

일 시 | 5. 12(토) 11:00 14:00 16:00  
5. 13(일) 13:00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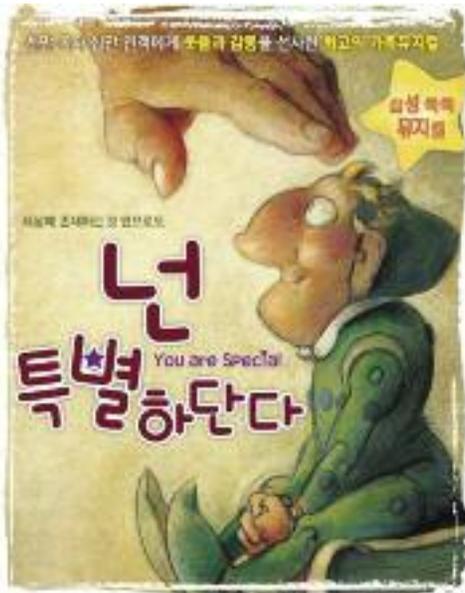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5,000원  
주 최 | 극단화랑  
문의처 | 1644-5564

#### ■ 공연개요

나 자신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세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감동 공연

#### ■ 프로그램

나무사람들이 사는 웨믹 마을에서는 착한 일과 잘한 일에는 별 딱지를, 나쁜 일과 못한 일에는 점 딱지를 붙인다. 언제나 실수투성이이고 엉망진창인 주인공 펀치넬로는 아무리 잘하려 하지만 계속 실수만 되풀이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만 받는다. 그러던 펀치넬로에게 루시아가 찾아와 웨믹들을 만든 목수 엘리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준다. 엘리 할아버지를 만난 펀치넬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 과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운범의 파워클래식

일 시 | 5. 13(일) 15:30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SK에너지(주)  
문의처 | 208-2036

#### ■ 공연개요

클래식 매니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식과 대중적인 내용의 클래식 공연

#### ■ 프로그램

- The Four seasons highlight
- The joke
- Eine kleine nachtmusik
- Is it true
- Dance for swans
- The simpsons
- Por una cabeza

### 가족뮤지컬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일 시 | 5. 19(토) 11:00 14:00 16:00  
5. 20(일) 13:00 15: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5,000원  
주 최 | 동그라미 그리기  
문의처 | 051-805-5355

#### ■ 공연개요

한 흑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속여서 부자가 되고, 이를 흥내낸 다른 흑부리 영감은 망신만 당하였다는 내용의 익숙한 전래동화를 각색하여 노래와 안무, 배우연기를 통한 뮤지컬로 제작

#### ■ 프로그램

흑부리 영감이 어느날 도깨비를 우연히 만난 곳에서 노래를 불렀다. 도깨비들이 그 노래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묻자 흑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도깨비들은 그 흑을 떼고는 재물을 주고가서, 그 영감은 잘 살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웃의 또 다른 흑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찾아가 노래를 하고 노래가 나오는 곳을 묻는 도깨비들에게 흑에서 나온다하자 도깨비들이 거짓말쟁이라 하면서 다른 흑을 하나 더 붙여 주어 망신만 당한다.

### 2012 김영임의 소리 효 대공연

일 시 | 5. 20(일) 14:00 18: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V 99,000원 / A 77,000원  
B 55,000원  
주 최 | (주)울산방송  
문의처 | 228-6154

#### ■ 공연개요

경기명창 김영임의 국악교연, 재미없는 국악 공연에 재미를 더 하기 위한 대규모 무대, 첨단 장비, 새로운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 국악 버라이어티 공연

#### ■ 프로그램

- 서곡
- 정선아리랑
- 한오백년
- 인사말
- 강원도 아리랑 외 다수곡



### 제3회 브리오 플루트 & 색소폰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5. 23(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브리오 플루트 & 색소폰 앙상블  
문의처 | 010-3815-8537

#### ■ 공연개요

브리오 플루트& 색소폰 앙상블 정기연주회

#### ■ 프로그램

- 아이들의 여인 제2모음곡, 다영 영(색소폰 협연곡)
- 헤이 주드(색소폰 협연곡), 가브리엘 오보에
- 인디아나존스 OST, 알라딘 OST
- 위대한 사랑(성악 테너곡)
- 생명의 양식(성악 테너 곡) 등 다수곡 연주



※ 전시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명작동화 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일 시 | 5. 26(토) 14:00 16:00  
 5. 27(일) 11:00 14:00 16: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원  
 주 최 | 초록공간 문예기획단  
 문의처 | 1566-9786

■ 공연개요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를, 아이들에게는 명작의 세계를 무대 위에 그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표현

●  
**제8회 공업탑 청소년 예술제**

일 시 | 5. 26(토) 19:00  
 장 소 | 야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공업탑 청소년 문화의 집  
 문의처 | 273-3011

■ 공연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주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청소년 가요, 댄스, 밴드 페스티벌

●  
**수원시립교향악단 창단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연주회**

일 시 | 5. 29(화)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수원시립교향악단  
 문의처 | 031-228-2814

■ 공연개요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창단 3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순회 연주회를 상임지휘자 김대진의 지휘로 개최

■ 프로그램  
 • Beethoven : Symphony No.5 외

●  
**베이스 문성환 독창회**

일 시 | 5. 29(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30,000원 / 학생 10,000원  
 주 최 | 문성환  
 문의처 | 011-538-1752

■ 공연개요  
 베이스(저음)이지만 깊고 화려한, 또 기교적인 면을 잘 표현해 보고자함

■ 프로그램  
 • Madamina IL Catalogo e questo  
 • Wer ein liebchen hat gefunden  
 • Tu sul labbro de veggenti 외 다수곡

●  
**제4회 울산 윈드오케스트라 영상음악회**

일 시 | 5. 30(수)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윈드오케스트라  
 문의처 | 010-5466-1664

■ 공연개요  
 울산 윈드오케스트라의 제4회 영상음악회

■ 프로그램  
 • 고향 그리워 · 바우고개, Graf Zeppelin in March  
 • 산촌, 검은 눈동자, Blue Bells of S채시뭇  
 • Intermission  
 • Paso Bella, Puppet on String, The Blues Factory  
 • American Graffiti VI, Mountain of Dragons

●  
**제7회 브레미야 챔버**  
**쏘사이어티 정기연주회**

일 시 | 5. 30(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브레미야 챔버 쏘사이어티  
 문의처 | 245-0587

■ 공연개요  
 울산 남구 구립 교향악단 소속으로 이루어진 브레미야 챔버 쏘사이어티의 7번째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 Adagio For Strings, op.11  
 • Cello Concerto No.9, in Bb  
 • Allegro moderato, Andante grazioso, Rondo  
 • Serenade for string. op.8

●  
**울산 색소폰 오케스트라**  
**가정의 달 특별연주회**

일 시 | 5. 31(목)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색소폰오케스트라  
 문의처 | 224-0946

■ 공연개요  
 클래식 및 영화음악, 가곡, 팝, 합창음악을 통해 울산시민의 정서 함양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큰 무대 공연을 통해 단원들에게 동기부여

■ 프로그램  
 • 아리랑  
 • 가곡  
 • Carnival of Roses  
 • Hey Jude 외 8곡



# Arts Friend

## 공연·전시가이드

### EXHIBITION

#### 울산대 서양화과 졸업작품전

기간 | 5. 3(목)~5. 8(화), 6일간  
 장소 | 제2,3전시장  
 주최 | 울산대학교 서양화과

##### ■ 전시내용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전공 학생들의 졸업 작품전으로, 참신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통해 울산시민과 함께하며 전통적 회화 방법 및 실험적 매체 표현 등 새로운 작품들로 졸업예정자 33명의 서양화 작품 70점 전시

#### 제12회 울산대 조소과 졸업작품전

기간 | 5. 3(목)~5. 8(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울산대학교 조소과

##### ■ 전시내용

다양한 조형성을 바탕으로 현대미술을 생활 속에서 느껴보고 독특한 자기 발상적 사고와 감성을 바탕으로 표현된 작품들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삶을 생각해 보자는 작품 전시로 졸업예정자 15명의 조소작품 30점 전시

#### 제9회 시민과 함께하는 회원작품전

기간 | 5. 10(목)~5. 15(화), 6일간  
 장소 | 제2,3전시장  
 주최 | 울산교육삼락회

##### ■ 전시내용

시민과 원로 교육자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원로들의 축적된 창작 노하우를 담은 작품들을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전시 퇴직교원 및 시민들의 작품을 3개 부문으로 공모·접수, 심사하여 작품 70점 선정 및 전시

#### 제46회 울산전국사진 촬영대회

기간 | 5. 11(금)~5. 15(화), 5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울산사진작가협회

##### ■ 전시내용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국단위 사진 공모전으로, 공모전의 입상작품 및 추천작가, 초대작가 작품 총 120점 동시 전시

#### 대한민국 환경미술인 초대전

기간 | 5. 17(목)~5. 22(화), 6일간  
 장소 | 제1,2,3,4전시장  
 주최 | 울산환경미술협회

##### ■ 전시내용

후세에 물려줄 깨끗한 자연환경과 환경사랑을 실천하고 신진작가 발굴 및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마련하는 전시로, 자연과 환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고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전국단위 입상작품 및 초대작품 총 300점 전시

#### 제16회 울산광역시 미술대전 I 부

기간 | 5. 24(목)~5. 29(화), 6일간  
 장소 | 제1,2,3,4전시장  
 주최 | 울산미술협회

##### ■ 전시내용

지역 신진작가 발굴 및 울산 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울산광역시미술대전의 작품을 공모·접수·심사하여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서예, 문인화, 공예(디자인) 6개분야의 작품을 종합대상, 서예대상, 우수상, 특별상, 특선·입선으로 구분 심사하여 입상작품 전시

#### 제16회 울산광역시 미술대전 II 부

기간 | 5. 31(목)~6. 5(화), 6일간  
 장소 | 제1,2,3,4전시장  
 주최 | 울산미술협회

##### ■ 전시내용

지역 신진작가 발굴 및 울산 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울산광역시미술대전의 작품을 공모·접수·심사하여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서예, 문인화, 공예(디자인) 6개분야의 작품을 종합대상, 서예대상, 우수상, 특별상, 특선·입선으로 구분 심사하여 입상작품 300여점 전시



## 당신의 불림불림한 Art 스타일 완성!

문예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풍성한 혜택이 당신을 찾아가합니다

### 회원의 종류

구 분	가입기준	연 회비	수혜인원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2인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10,000원	1인
가족회원	한 가족	40,000원	4인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인 이상)	10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	가입인원

※ 청소년회원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상 나이 확인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여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비납부 | 회원가입하실 때 납부

- 인터넷 가입 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회원가입비(문화예술회관)
  -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시 30% 할인  
(일반회원 2매, 청소년회원 1매, 가족회원 4매, 단체회원은 본인에 한함)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아트 클래스 등록 시 30% 할인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초대공연 시 초대권 우송
- 회원을 위한 음악회 개최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할인혜택 부여(일부 대관공연 제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세요!

빠른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하시면 공연관람권이 쏟아집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http://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